Instant comment

2차전지 섹터 급등: 중국 상호 관세 어떤 시나리오에도 유리

[2차전지 섹터 급등: 수급 + 정책 불확실성 해소 + 상호관세 수혜]

8월 4일 위클리를 통해 제시했듯이 8월 12일 전후 중국 상호관세 관련 어떤 시나리오에도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이 유리

1. 한미 상호관세 15% + 대미 투자펀드 → 불확실성 완료 및 섹터 주가에 긍정적 영향
   : 한미 상호관세(15%)는 북미 내 '수입 억제', AMPC, 미국 정부 인센티브 및 $2,000억 대미 투자펀드는 '북미 투자 유인'을 동시에 제공 → 현지 공장 보유 기업 미국 내 구조적 우위 확보

2. 중국 상호 관세 90일 연장(~8/12) → 어떤 시나리오에도 국내 2차전지 유리
   : 5월 12일 제네바에서 90일 '관세 휴전' 합의. 종합 관세율 기준, 미국 145% → 30%, 중국 125% → 10%로 임시 인하. EV는 100%, 태양광 셀 50%, 2차전지 25% 등은 여전히 고관세. 휴전 만료일은 8월 12일. 재무장관 Bessent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연장을 거부할 것이라는 예상을 일축. 90일 휴전 재연장 가능성 높아짐

1) 시나리오1. 90일 휴전 재연장
   EV, 태양광셀, 2차전지 등 여전히 고관세 유지로 북미 현지 공장 비중 높은 기업 중심 비중 확대 유효

2) 시나리오2. 부분적 완화
   양국이 리튬 같은 희토류, AI 반도체 칩, 펜타닐(마약 원료) 등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 상호 관세를 낮추는 선별적인 타협을 하는 시나리오.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낮아져 일부 저가 LFP 유입 가능성 존재. 다만, 그 이외에도 FEOC, 정부 인센티브 등 규정, 2차전지 완제품에 대한 규정 유지로 여전히 북미 비중 높은 기업에 긍정적

3) 시나리오3. 휴전 실패 (관세 원상복귀)
   트럼프가 휴전 연장을 거부하면서, 원래 부과했던 초고율 관세(미국 145%, 중국 125%)로 되돌아가는 시나리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EV, 2차전지 기업 원가 상승 압박 존재. 다만, 중국산 셀·소재 사실상 진입 봉쇄로 북미 공장 비중 높은 기업들은 공급망 차질에도 수혜 가능
   → 트레이딩 아닌 섹터 비중 확대 유효

Instant comment

[북미 내 중국 공급망 사실상 봉쇄: 북미 ESS, EV향 수주 확대 지속 기대]

2027년 8월부터 2030년 7월까지 43억 1,00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배터리 셀 공급. 계약 상대는 비밀 유지 필요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테슬라로 추정

미국 상호관세 부담으로 북미 현지 공장 있는 LGES에 공급 계약 체결한 것으로 추정. 특히, 테슬라는 ESS에 LFP 배터리를 적용하는 만큼 북미 내 ESS향 LFP를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LGES과 계약 체결한 것. LGES는 현재 ESS향 LFP만 50GWh 수주잔고 확보. 테슬라 계약이 본격화된 만큼 북미 내 ESS 점유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향 추가 계약도 기대. 따라서 북미 내 ESS 점유율 확대 기대

EV향 LFP도 기대되는 중. GM 볼트는 단종 후 2027년 출시 예정. 원래는 CATL 기술 라이선스를 통해 LFP를 적용하려 했으나 정부 인센티브, AMPC 등 전부 막히자 LGES와의 얼티엄셀즈 2공장 양산 LFP 적용할 계획

이처럼 북미 내 중국 공급망은 사실상 봉쇄. 이에 북미 내 EV, ESS 중심 수주 확대 지속될 것. 다만, 북미 EV 수요 둔화 지속으로 주로 LFP 적용 차종 중심으로 확대될 것. 따라서 북미 현지공장 비중 높고 LFP 양산이 본격화되는 기업 중심으로 수혜 클 것

[투자전략 및 Top Pick]

3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트레이딩 유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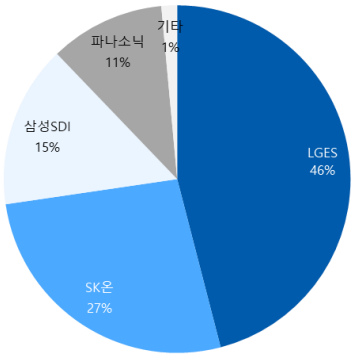
1) 북미 정책(정부 인센티브 +대미 펀드+ 핵심 원자재 중국 고관세+FEOC), 2) 미국 내 중국계 신규 공장 승인, 진행 전무, 3) 북미 OEM사들 중국 기술 라이선스 활용 포기 등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북미 내 공장 보유 또는 계획 중인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은 구조적 우위 점하게 될 것

이에 현지 공장 비중 높고 여전히 글로벌 EV향 2차전지 셀 선두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 중심 비중 확대 유효. 2026년에는 국내 2차전지 중심 기업 재편 가능성도 존재. 이에 재편 이후 승자 기준으로 Top Pick 제안

'LG에너지솔루션(LG 배터리 관련 기업)', '포스코퓨처엠(포스코 배터리 관련 기업)', 구조적 성장 기업인 '나노신소재' 제시

Instant comment

2차전지 셀 미국 현지 공장 기업별 비중(~2026년 예정 포함)



자료: 각 사,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차전지 관련 관세 등 주요 정책 정리

구분	내용
한미 상호관세 15%	7월 31일 합의로 한국 수입품 전반에 15% 관세 확정.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그중 2,000억 달러를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에 배정, 수익 대부분 미국) 약속
동박·알루미늄박: 50% 관세	구리 파생 제품(동박 등)·알루미늄박에 50% 관세. 다만 정광·슬러리·cathode 용 구리 원료는 면제
IRA 생산세액공제	IRA AMPC 폐지는 2033년으로 유지 FEOC관련 조항을 PFE(금지외국단체)로 구분, 정부 지배 수준에 따라 통제 수준 세분화 PFE 하위 개념으로 정부 지배 수준에 따라 통제 수준이 강한 SFE(지정외국단체), 통제 수준이 약한 FIE(외국영향단체)로 재분류 PFE는 직접 보조금 수령 금지 및 PFE로부터 원료 지원 비율도 제한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안나**)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